

지역 예술인·단체 지원 계원 돼 주세요

문화예술 펀딩 '만만계' 14개 프로젝트 최종 선정

네이버 '해피빈' 다음 '같이 가치' 통해 모금...오프라인 병행

"문화예술 모금 프로젝트의 계원이 돼 주세요."

올해도 '문화예술 펀딩프로젝트-만만계' 공동 모금활동이 본격 시작됐다. '만만계'는 시민이 내는 기부금에 똑같은 금액을 더해 지역 예술인·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문화공동체 광주의 대표 문화예술 모금활동으로,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순수예술 창작분야 '문화가 든, 문화가 든' 8개, 신진 예술가 지원 분야 '나는 하나의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다' 6개 등 총 14개 프로젝트를 최종 선정했다.

만만계에 선정된 문화예술인·단체는 목표 모금액 달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모금활동을 진행하고 재단은 '갯날(100만원 이상 모금 달성/모금기간 종료)'이 되면 모금액 1만 원당 1만 원을 더해준다. '만만(萬萬)한 이자'를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만약 126만원을 모금했다면 재단이 126만원을 더해 최종 252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자액 매칭은 프로젝트당 최대 1000만 원까지이고 사업비 65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모금은 프로젝트별 특성과 일정에 맞게 네이버 '해피빈', 다음 '같이 가치' 플랫폼을 통해 개별 모금함을 개설해 진행하며 프로젝트 사연에 맞춰 스토리텔링을 통한 모금이 이뤄진다.

온라인 모금은 4월부터 오프해 현재 빛

고을댄서스, 최류빈, 임소엽이 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까지 개별 프로젝트에 따라 운영된다. 네이버 '해피빈'은 광주문화재단 해피로그(happyllog.naver.com/gjcfgive.do)를 통해 개별 모금함에 기부가능하며 네이버에 '광주문화재단'을 검색하면 모금중인 개별 모금함이 검색된다. 다음 '같이 가치'는 6월 첫 오픈예정. 최종 선정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순수예술 창작분야 '문화가 든, 문화가 든'

- ▲빛고을댄서스 '2019스트릿댄스배틀-라인업'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전국 댄스 배틀)
- ▲원보틀(One Bottle) 'BOTTLE LIVE'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OST를 통한 힐링 콘서트)
- ▲문화창작소그레이스 '오페라-조선, 브로맨스' (26년 나이를 넘어서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의 우정 그린 오페라 공연)
- ▲전통타악연구회두드리 '복 들어가요' (모듬북, 봉산 사자탈춤 등 새로운 예술작품으로 지역사회 찾아가는 공연)
- ▲임소엽 '위드(With) 콘서트-3인 3색의 음악선물' (오카리나, 성악, 피아노의 앙상블을 통한 음악 공연)
- ▲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 'Youth Orchestra-꿈을 연주하다' (음악을 통한 봉사 등 다양한 청소년 공연 활동)
- ▲극단 비람꽃 '계릴라 시어터' (청년의 패기로 만들어지는 열정 폭발 공연)
- ▲국악 그룹 各人各色(각인각색) '신초영전' (창작 국악뮤지컬 신초영전 정기 공연)

◇신진예술가 지원 분야 '나는 하나의



빛고을 댄서스 라인업



극단 비람꽃의 공연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다'

- ▲최류빈 '우리 테라스를 소개합니다' (청년 시인 최류빈 시집 발간 및 출판기념회)
- ▲고마음 '마음으로부터전' (작품을 통해 익숙한 듯 낯선 공간으로 초대하는 개인전)
- ▲김하슬 '밤의 환영-치유전' (이상 세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국과 개인전)
- ▲송재영 '기억보관소-살' (시민의 기

억을 소재로 한 책 발간) ▲신지영 '누빔-3D프린터를 통해 도자로 재해석하다전(디지털 도구를 통해 도자공예의 조형성을 재고하는 전시) ▲문창환 '문창환 미디어아트전' (존재론적 가치를 주제로 작업하고 기획하는 문창환의 미디어아트 전시) 문의 062-670-7957.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성악·어린이 중창·첼로·밴드 연주곡 등 무대에

광주작곡마당 두번째 연주회 27일 김닛과

지난해 출범한 광주작곡마당(대표 이승규)이 오는 27일 두번째 정기연주회를 연다.

이날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대인동 김닛과 2층에서 열리는 '2회 광주작곡마당 정기연주회'에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작곡가 5명이 창작곡을 발표한다. 성악, 어린이중창, 4중창과 함께 첼로·피아노·밴드 연주곡 등 다양한 장르로 관객을 만난다.

전남대 음악학과를 졸업한 심효정은 자신이 작사·작곡한 4중창 가곡 '비빔밥'을 소프라노 서인선·장지일, 테너 박은찬, 베이스 구대웅, 피아니스트 김보람의 연주와 함께 무대에 올린다. 이어 이승규 광주작곡마당 대표는 '무등산 화가' 고(故) 이강하 화백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이강하리듬-초월' 중 '천지인-역사'를 발표한다.

목포대 음악과를 졸업한 최원아는 중창곡 '빛 하나'



국현



김정은

와 '평화를 그리다'를 빛소리 중창단(지휘 마경은)의 화음으로 선보인다.

한국합창작곡가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현

전남대 의대 교수는 가곡 '초록별 지구' (박인자 시), '지금 이대로, 그냥 그대로' (김대규 시), '젓가락 타령' (조정관 시)로 한국 고유의 정서를 표현한다. 콘텐츠미디어아트그룹 모달 대표인 김정은(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커머셜 음악 석사)씨의 '벚꽃 아래 이별' '따뜻했어, 지혜' '수고하셨어요'는 보컬·기타·베이스·피아노·드럼 등 밴드 연주한다. 이날 공연 사이사이에는 작곡가 인터뷰가 진행된다. 전석 무료. 문의 010-3093-4828.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여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

바이올린·첼로 무료 교육 참가자 모집

광주여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대표 김유정)가 바이올린과 첼로 연주를 무료로 교육하는 '빛고를 하모니' 참가자를 오는 25일부터 5월6일까지 선착순 모집(바이올린반 15명·첼로반 10명)한다.

'빛고를 하모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광주문화재단 등이 후원하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하나로 지역민을 위해 마련된 퍼블릭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는 5월18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12시 남구 구동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 대연습실에서 18차례에 걸쳐 광주여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 연주 교육을 받는다. 음악이론 교육과 결과 발표회가 함께 진행되며 유관단체 공연 관람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초등생 이상이면 초보자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광주여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gjwp.or.kr)에서 내려 받아 전자우편(cello5115@hanmail.net)으로 내면 된다. 문의 010-3625-5115.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나태주 시인의 '행복'중에서).

최근 제주 서귀포관광장에서 열린 '나태주 시인과 함께하는 시 읽는 오후' 콘서트. 서귀포시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나 시인의 시 낭독과 시민들의 시낭송 공연 등으로 꾸며졌다. 참석자들은 일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인상적인 시인의 시를 읊으며 기억 저편의 아련한 추억을 떠올렸다. 그도 그렇게 서귀포극장은 1963년 문을 연 서귀포 최초의 극장이다.

그래서인지, 지난 2013년 서귀포시는 화재 등으로 수십년간 방치된 이곳을 예술극장으로 리모델링했다. 공간의 매력을 살린 프로그램과 이중섭거리와 연계한 서귀포 건축기행 코스로 매년 수만 명이 다녀가는 명소로 키우고 있다.

하지만 너무 부러워 할 필요는 없다. 광주에도 서귀포극장 못지 않는 근사한 '지붕없는 공연장'이 있다. 광주공원에 자리하고 있는 '광주시민회관'이다. 1971년부터 30년간 지역 최초의 복합문화시설로 시민들과 동고동락해 온 추억의 장소다.

겉에서 보면 평범한 극장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

'시민회관', 세상속으로

났고 허름한 외관의 서귀포극장은 350m의 '이중섭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이중섭화백이 한국전쟁을 피해 서귀포에서 머물렀던 흔적들을 보존한 곳으로 이 화백의 초가집, '이중섭 미술관', 공방과 카페들이 들어서 있다. 하지만 산뜻한 색감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공간들이 많이 눈에 띄어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쉽다. 나역시 그랬다. 이중섭거리를 서너 차례 방문했지만 서귀포극장을 둘러본 건 올봄이 처음이다.

극장 안으로 들어서자 대표소와 낡은 연필기 등이 눈에 띄었다. 그런데로 비에서 안쪽으로 발걸음을 몇발짝 옮기자 '반전'이 펼쳐졌다. 파란 하늘이 그대로 들어오는 지붕없는 무대와 계단식 객석이 기다리고 있었다. 제주돌로 쌓아 올린 벽과 그 벽 위로 뻗어 있는 초록색 담장이만큼이 마치 잘 짜놓은 미장센 처럼 강렬했다. 그 어디에서도 쉽게 만날 수 없는 독특한 풍경에 단성이 절로 나왔다.

절로 되돌아간 듯 옛 모습 그대로다. 빈집한 도심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르는 쉼터로는 그만이다. 그것도 광주천을 건너 계단만 오르면 만날 수 있으니 접근성도 좋다.

현재 광주시는 이 공간을 청년들의 창의성과 열정으로 되살리는 공공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공원에 들어서면 일지조건 때문에 시간이 멈춰 있는 야외공연장 외에는 활용 가능한 시설과 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시민회관의 '화려한 시절'을 재현하기 위해선 시의 발상의 전환과 시민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차체에 인근의 광주문화재단과 내년 완공 예정인 AMT(Art and Media Technology), 나아가 광주천 너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예술의거리, 대인시장과 있는 '큰 그림'을 그리자. 자칫 현실적 여건에 묶여 '틀'을 깨지 못한다면 그저 그런 재생사업으로 끝날 게 뻔하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브로콜리너마저 클럽투어' 27일 피크뮤직홀

4인조 밴드 '브로콜리너마저'가 오는 27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사동 피크뮤직홀에서 '2019 브로콜리너마저 클럽투어' 광주 공연을 연다.

탁원(보컬·베이스), 잔디(키보드), 류지(보컬·드럼), 향기(기타)로 구성된 '브로콜리너마저'는 지난 2008년 '춤', '앵콜요정금지' 등이 담긴 정규 1집 '보

편적인 노래'를 냈다. 꾸준히 앨범 제작과 공연 활동을 하며 2010년과 2011년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모던록 노래 부문을 2년 연속 수상했다. 이 밴드는 지난 2017년 9월 열린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 무대에 서기도 했다. 전석 4만 4000원(멜론티켓). 문의 070-7745-3003.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